

당뇨병성 위장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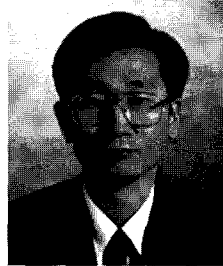
다뇨병성 위장병증이란 당뇨병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화기계통의 제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오심, 구토, 식후팽만감, 변비, 설사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3/4정도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며 가끔 심한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원인은 당뇨 자체의 고혈당에 의하거나 혹은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에서 자율신경의 침범에 의한 장운동의 이상에 의해 초래되며 이러한 장운동의 이상은 식도, 위, 소장, 대장의 모든 위장관에서 발생된다.

자주 발생하는 증상을 세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위무력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의한 위배출의 장애에 의해 오심, 구토, 식욕부진, 조기포만



김 상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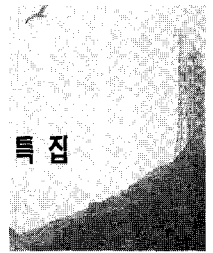
단국대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감, 복부팽만감등의 증상이 초래되며, 보통 복부통은 동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음식물 섭취량의 변동과 음식물이나 약물의 위장에서의 흡수가 장애를 받기 때문에 혈당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불안정 당뇨병'과 같은 혈당조절에 심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진단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위배출시간 측정이나 위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위의 수축력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치료는 항콜린작용이 있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약들이 위배출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하고, 섬유소와 지방이 적게든 식사를 적은 양으로 자주 섭취하며 죽과 같은 유동식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위의 수축력을 높일 수 있는 약제들인데 이에는 메토클로프라미드(멕소롱), 돔페리돈, 시사프라이드, 그리고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다. 위석



**오심, 구토, 식후팽만감, 변비, 설사는
당뇨병 환자의 3/4정도에서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으로
근본적으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에 의한 위배출 지연이 있는 경우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며 우울증이 있을 경우 위 무력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정신치료와 함께 항콜린작용이 적은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2 변비

당뇨병성 위장병증의 증상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자율신경 이상에 의한 대장운동의 저하에 의해 발생하며 치료로는 대변량을 늘리는 psyllium과 같은 약이나 변을 묽게하는 변비약을 사용하기도 하며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시사프라이드 등도 사용된다.

3 당뇨병성 설사

당뇨병성 설사란 감염등의 특별한 원인 없이 당뇨병환자에서 발생한 설사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말초와 자율신경병증을 동반한 오래된 당뇨병환자에서 발생하며 설사는 수일이나 수주간 지속되다가 정상변 혹은 변비가 반복되는 형태로 간헐적으로 발

생한다. 이 경우 체중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은 다양한데 체장의 소화액 분비의 이상, 장운동 이상에 의한 장내 세균의 과증식, 담즙산 흡수의 이상, 자율신경장애에 의한 장내 분비물의 증가 등이다.

치료는 먼저 장내 세균 과증식을 겨냥한 항생제 치료를 시도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 로페라미드와 같은 지사제를 사용하며 여기에도 반응이 없으면 알파2 아드레날린성 약제인 클로니딘을 사용하여 장내 분비물을 줄이는 치료를 시도한다. 설사가 심하고 클로니딘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최근에는 옥트레오타이드라는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당뇨병성 위장병증은 당뇨병환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 이러한 증상에 의한 불편감뿐만 아니라 혈당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당치료와 함께 병행치료를 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당뇨병을 진단받을 때부터 철저히 혈당관리를 하여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